

原子力發電對策 協議機構의 必要性

On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Committee
for Nuclear Power
Projects

金世鍾

動力資源部 原子力發電課長

1978年 4月 우리나라 最初의 原子力發電所인 古里 1號機가 竣工되었다. 그리고 今年 4月이면 月城 1號機가 竣工되고 또한 6月이면 古里 2號機가 竣工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總原子力發電 設備은 192萬kW에 達하게 되며, 全体 發電設備中에서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比重은 14.6%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原子力發電의 比重은 1986년에 가서는 27.1%로 1991년에는 40%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原子力發電의 比重이 이와같이 繼續 增加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原子力發電量

이 늘어나는 것만큼 石油의 消費量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原子力發電의 電力生産原價가 石油火力의 그것보다 低廉하기 때문에 그만큼 電力生産原價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效果를 믿기 때문에 原子力發電所를 繼續해서 더 많이 建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效果는 우리가 原子力發電所를 보다 安全하게 그리고 보다 經濟的으로 建設, 運營할 때에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銘心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安全하고 經濟的으로 原子力發電所를 建設, 運營할 수 있을까.

原子力發電事業은 高度의 綜合技術産業이다. 이는 安全성의 確保를 絕對要件으로 하며, 莫大한 投資財源을 必要로 한다.

때문에 最初의 建設計劃 段階로 부터 基本設計過程, 數많은 部品을 製作, 加工, 組立하는 機資材의 生産, 製作過程, 各種 施設을 設置하는 建設施工 過程 그리고 複雜한 設備을 運轉, 維持, 補修하는 過程에 이르기까지 高度의 專門技術과 熟練을 必要로 하며 徹底한 品質管理를 통한 品質의 保障과 原價節減의 努力을 持續的으로 競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連의 過程은 어느 한 企業이나 集團단의 努力에 依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電力會社는 勿論이려니와 數많은 機資材製作業체와 建設施工業체 및 技術用役業체가 參與하여야 하고, 研究機關과 學界의 支援을 必要로 한다. 그리고 이에 關한 政策을 全般的으로 統轄하는 政府關係部處가 參與하게 된다. 에너지政策과 原子力發電所 建設, 運營을 主管하고 있는 動力資源部,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을 다루고 있는 科學技術處, 機資材의 生産, 製作를 管掌하고 있는 商工部를 비롯해서 投資財源의 調達, 技術人力の 養成確保 그리고 環境保全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政府部處의 支援을 必要로 한다.

原子力發電事業은 이러한 모든 分野 即, 政府, 電力會社, 製造業체, 建設施工業체, 研究所 및 學界等の 參與와 一致된 努力 그리고 一般國民의 支持의 바탕 위에서 成就되는 協力體制의 所産인 것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어느 한 分野라도 소홀히 다루

어길 경우에는 그것은 곧 안전성을 희생하거나 경제성을低下시키는 결과를 招來하기 때문에 어느 한分野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더우기 안전성과 경제성은 마치 天平 위의 양 추의 關係와도 같이 서로 相反되는 關係에 놓여 있기 때문에 兩者間에 適切한 調和와 均衡을 維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分野에 適用될 수 있는 統一된 룰(Rule)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서 原子力發電이 궁극적으로 要求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對한 一貫된 目標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分野에서 遂行하여야 할 機能은 비록 다르지만 結局은 同一한 目標을 追求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個個의 機能을 모두 綜合하였을 때 原子力發電이라고 하는 하나의 產物이 生成되기 때문이다. 이는 原子力發電所가 計劃되고 建設, 竣工되는 어느 한 時點에서 보았을 때는 물론이려니와 앞으로의 먼 將來를 향해 追求하여야 할 目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原子力發電事業은 綜合적으로 最適化되어야 한다. 어떤分野가 越等히 뛰어나서 先進技術水準에 到達해 있더라도 또 다른分野는 落後되어 있다면 全体的으로는 落後된 技術水準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分野間의 均衡도 維持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複雜 多岐한 機能을 한군데로 수렴하고 全体가 指向하여야 할 目標을 設定하는 것이 우리가 解決하여야 할 가장 重要한 當面 課題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役割을 해 주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우선적으로 政府가 하여야 할 일이다.

原子力發電에 關한 基本法인 原子力法에서는 原子力委員會가 그러한 機能을 遂行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同委員會가 그러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였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指摘일 것이다.

多幸스럽게도 最近에 와서 이러한 問題들이 本格的으로 檢討되고 있고 그에 對한 改善方案이 具體적으로 論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事實이라고 하겠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分明히 하여야 할 일은 앞으

로 構成될 協議調整機構는 그것이 形式上으로는 어떠한 形態를 取하든 간에 實質적으로는 全体分野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도록 하되 分野間의 意見 差異를 좁혀줄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最適化된 國家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政策方向을 提示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原子力에 關한 協議機構는 一次的으로 有關部處間의 意見을 綜合 整理할 수 있는 實質적인 權限을 가져야 한다. 協議機構를 어느 한 部處의 所屬機關으로 하고 다만 그 構成員으로서 모든 關係機關을 參與시킬 경우에는 類似한 效果를 거둘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協議機構의 權限 範圍에 異意가 있을 수 있으며, 協議機構에서 決定된 事項의 執行方法에 있어 多少의 問題點이 提起될 수 있다.

따라서 同機構는 아무래도 모든 行政部處를 總括할 수 있는 國務總理나 副總理 所屬下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同 協議機構는 汎國家的으로 組織되어야 할 것이다. 그 構成員으로서는 政府關聯機關은 물론이고 電力會社 그리고 設計用役會社, 機資材製作會社 및 建設施工業體 등의 產業界와 關聯 研究所 및 學界 등 全体分野의 專門人士를 골고루 包含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構成員이 過多할 경우에는 오히려 逆現狀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점은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同協議機構는 議決機能을 가지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思料된다. 原子力의 利用開發에 關한 基本政策을 樹立 確定하고, 關係部處 相互間의 業務를 協議 調整할 수 있는 最終 審議議決機能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同機構가 모든 關係者와 最高의 專門家들로 構成된 集團이므로 그러한 機能을 充分히 完遂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上記와 같은 機能을 가진 協議機構를 設置, 運營함으로써 原子力 發電事業의 合目的的이며 效率적인 推進을 保障받을 수 있을 것이다.

原子力發電事業은 汎國家的인 國民總意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그마한 部品 하나의 故障이나 승무원의 사소한 失手が 많은 乘客을 태운 飛行機를 추락시키는 原因이 될 수도 있다는 點을 우리는 恒常 銘心하여야 한다.